



Weekly Keyword

**"두산로보틱스 1Q24 실적 발표"**

두산로보틱스의 1Q24 실적이 발표. 전년비 매출 성장 흐름은 유지되었으나, 성장폭 둔화 및 영업적자 확대는 우려 요소로 부각. 기존 사업 방향성은 변함없으며, 하반기 이후 성장 궤도 복귀 기대



로봇/기계/운송 양승윤  
02) 368-6139\_syyang0901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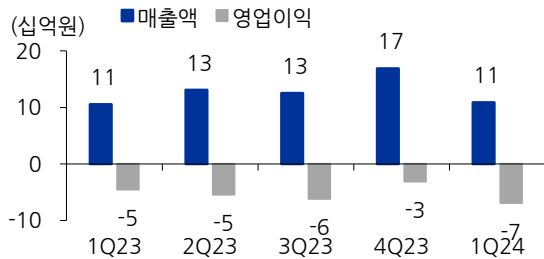


로봇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38)

[두산로보틱스 1Q24 실적 발표]

■ 두산로보틱스의 1Q24 실적은 매출액 109억원(+3.1%yoy), 영업손실 69억원(적자확대yoy) 기록. 탑라인 성장 흐름은 유지했으나, 고금리 지속, 유럽 시장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성장 폭은 다소 부진. 영업 손익은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적자 확대. 신제품(\*P시리즈) 공개 및 판매 채널 확대(\*28개 추가), 독일 지사 설립 추진(\*5월), M&A(\*3Q24) 등 기존 사업 방향성 유지되고 있고 있고, 경쟁사인 UR 대비 매출 증가폭(-6%yoy)을 아웃퍼폼한 점은 긍정적. 주력 시장인 북미 시장 매출 성장폭은 +79%yoy 기록했으며, 2Q 이후 북미 시장 고마진의 H 시리즈 판매 본격화로 수익성 개선 기여 전망. 하반기 이후 성장 궤도 복귀 기대. 아직 기술적으로 실제 수요 현장 적용에 시스템 통합(SI)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기대보다 로봇 시장의 개화 속도는 더딜 수 있으나, AI 발전과 다양한 업종에서 로봇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정 시점 이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 존재

Key Chart: 두산로보틱스 분기 실적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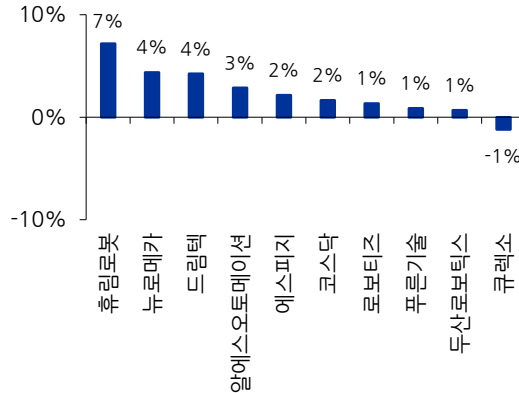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Quatiwise, 유진투자증권

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



자료: Quatiwise

로봇 주요 뉴스(05/06~05/12)

[산업용 로봇]

- 두산로보틱스, 팔레타이징 특화된 P 시리즈 공개
- 케이엔알시스템, 중부발전과 유압로봇 개발 계약 체결

[서비스 로봇]

- 고영, 뇌수술로봇 FDA 의뢰기기 시판 전 허가 신청
- SK실더스, 뉴빌리티와 공동주택용 순찰로봇 상용화
- 원전 고리 1호 해체 작업에 사족보행로봇 투입

[기타(정책/부품/SW)]

- 삼성전자, 로봇 사업 역량 강화위한 사업 조직 개편
- 삼성전자, 자율주행SW 인력을 로봇 연구로 전환 배치
- 레인보우로보틱스, AI 연구용 양팔로봇 판매 개시
- 로지스올엔지니어링, 씨메스와 비전SI 로봇 협력

[Global]

- 인트린직, 엔비디아 AI와 아이작 플랫폼 통합
- 심보틱, 2분기 매출 4.24억 달러 기록해 전년비 성장
- 미국 해병대가 고스트로보틱스 비전 60 테스트 진행
- 나이트스코프, 경비로봇 등 신규 고객 확보 발표
- 서브로보틱스, 마그나와 로봇 제조 계약 확대 발표
- 대만 테크만 로봇, 30kg 가반하중 협동로봇 출시
- 중국 에버윈프리스전, 피규어시에 로봇 부품 공급
- 일본 니콘, 올 가을 산업용 로봇 비전시스템 출시
- 가와사키로보틱스, 새로운 협동로봇 제품군 출시
-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, 23년 당기순손실 248억엔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